



시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성경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면서 그 기준은 형제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로 미루어 보아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요일3:10-12). 그러면서 그는 우리들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자고 권하였다(요15:12,17). 스벨전 목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굶주리고 누더기를 걸친 저지 소년을 발견했다. 그는 소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는 새 옷과 음식을 주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도 중에 몇 번인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였다. 기도가 끝나자 저지 소년이 물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너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의 법은 육친의 형제애(兄弟愛)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를 믿고 새로 거듭난 신자들 간에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형제 사랑의 실천은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의 특징이었다(살전4:9).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신자들의 의무로 간주했고(히13:1)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다(마5:22). 여기서 형제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을 통칭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에 견주되는(마5:22-23) 이유는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내적 동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와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함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제2단계인 욕설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살인으로 치달아 가는 발전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다(마5:21-22). 우리에게 형제는 소중하다. 소크라테스는 “형제는 금전보다 귀하다. 금전은 자기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형제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금전은 무감각한 것이지만 형제는 동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장자는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 의복은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어도 수족은 한번 떨어져 버리면 다시 붙일 수 없다”고 했다.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진정 형제자매라고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에서 거지의 구걸을 받았다. 돈을 주고 싶어 주머니를 뒤졌으나 그날따라 동전 한 푼도 없었다. 톨스토이는 거지에게 “형제여 마침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 미안하오” 하며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그때 거지는 아주 만족스런 표정으로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습시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참된 형제 사랑은 친절한 말과 선한 행동에 달려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며 형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계명이다(마22:39-40). 계명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겠다.

더 이상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

9.11테러 10주년...미 언론, 달라진 국제정치 역학과 미국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성찰 보도

(1면에서 계속)

하루아침에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국제정치의 작동 원칙이 돌변하게 된 것이다. 소위 탈냉전(Post Cold War) 혹은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라 불리던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는 (1990년부터 2001년 9월 11일까지) 국제정치의 힘의 구조,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 등이 불분명했다. 미국이 유일 초강국이 될 것인지 여러 강대국이 출현할 것이지도 모호했다.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인지 혹은 분쟁의 시대가 될 것인지도 불투명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9.11테러가 발생한 날 저녁 부시 대통령은 “수천 명의 죄 없는 목숨이 악마에 의해, 비열한 테러에 의해, 숨겨졌다”는 말로 시작되고 성경 시편 23장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과 “미국은 과거에 적들을



문에 전쟁을 벌이는 경우, 전쟁 과정에 ‘협상’이란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된다. 어떤 신도 악과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일찍이 주장한 문명 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화를 인정하고 교류, 포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이민자 정책은 크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나뉜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기존 문화와 종교, 사회적 질서 이 주장한 문명 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황이 달라졌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노력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자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것. 이런 불만은 전에도 있었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 이민자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질적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묵과하고 있던 기독교 전통의 유럽 백인들에게 9.11테러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심어줬다. 이슬람의 본래 종교적 모습은 테러와 관계없으며 극단주의자들과 대부분 무슬림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지가 좁아졌다. 스위스에서 이슬람 사원건축 불허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의 일은 유럽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일 뿐이다.

다시 미국 사회로 돌아 가보자. 9.11테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지만 많은 미국인이 외상후스트레스

국제 행동 근거에 국익 외에 증오 포함...선악 대결엔 협상여지 없어 기독교이슬람 전쟁 문화 충돌 도식 벗어나 가장 미국다운 색채 기대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적들을 쓰러뜨릴 것이다...신이여 미국을 보호하십시오”라는 말로 끝난 비장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반테러전쟁의 진행 방향에 대한 최초의 결정적인 언급이었다. 미국은 테러전쟁을 선과 악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9.11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힌 알카에다 조지 역시 이 싸움을 선과 악의 싸움이라 규정했다. 이교도는 악이요 자신들의 믿음은 선이다. 선과 악의 싸움은 악을 제거함으로써만 끝날 수 있다.

과거에 국가들은 국가이익에 의거해서 행동해왔다. 이익이 국가 간 충돌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9.11이후 세계정치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라는 요인도 국제 행동의 근거가 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상대방이 되지는 사실에 근거한 행동이었으며 미국이 설정한 악의 축 3개국을 미국이 보기에 미국을 가장 미워하는 나라들이었다. 선과 악, 미움과 증오와 같은 감정적 기준이 국제정치 행동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쟁을 정치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적의 전쟁 의지를 꺾으면 전쟁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의 대결을 벌이는 경우, 혹은 미워하기 때

9.11테러는 분명하게도 극단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펼친 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무슬림들은 불쾌하고 따가워진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슬람 공포증”이 바로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미움을 대변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사회 현상으로 발생할 정도로, 선과 악의 흑백논리가 어느새 미국인들의 일상에도 스며들었다.

여기에 최근 노르웨이 연쇄테러를 계기로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테러의 희생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범행 전 인터넷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이슬람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과 다문화주의가 유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항하는 ‘유럽의 내전’이 이미 시작됐으며, 이번 테러는 그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테러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란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에 따라 개별 민족국들이 갖고 있던 기존 문화에 이주, 난민 등으로 유입된 다른 민족들의 다양한

가치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을 융화 또는 흡수시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이민 오기 전 지녔던 사회적 가치와 문화, 종교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무지개처럼 각각의 색을 인정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막고 다양성을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유럽연합(EU)이 확대, 심화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민도 가속됐다. 그러나 종교롭게 유럽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자가 늘고 주택난이 심화됐으나 재정적자로 복지 부문 지출이 감축되며 상

장애(PTSD)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선과 악으로 이분화 된 사고 유형이 더욱 더 심화된 증상처럼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뉴욕시의 3개 9.11테러 건강 프로그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옛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 대한 공격에 노출됐던 최소 1만 명의 소방관, 경찰, 시민 등이 PTSD, 우울증 등을 겪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PTSD는 심리적 외상을 입은 뒤 나타나는 재경험, 관련 자극 회피, 과민반응 등의 불안한 정신·심리 상태를 말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383-0200 (대. 프) (323) 665-0009 (광고국)
Fax: (213) 380-5951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프)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프)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Counseling,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영어권 사역자 청빙
(English Ministry Pastor)

사랑한인교회에서는 이중언어 가능한 Youth Group (중고등부) 와 EM Group 을 섬길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Youth Group 1명]
[E.M. Group 1명]

자격(Qualifications)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Passionate for 2nd generation ministry)
- 영어설교가 가능하신분 (Ability to Preach in Fluent English)
- 정규신학대학 졸업 또는 재학중인 분 (M. Div or currently attending an accredited seminary)

제출서류(Application Requirements)

- 이력서 (Resume - includes family status with photo)
- 사역비전 에세이 (Personal Statement about Vision)

접수마감일(Application Deadline)
2011년 9월 15일 까지

보내실 곳(Submit)
2801 W. Temple St, Los Angeles, CA 90026
교회: (213) 380-0085 팩스: (213) 380-0095
이메일: LCK0085@SBCGLOBAL.NET / 웹사이트: www.lovekoreanchurch.org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Application will not be return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한인교회
Love Korean Church
담임목사 하재식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어: _____ 평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net

문제 본질과 원인 규명이 우선

국제제자훈련원, 소그룹 문제 해결 원리 소개

소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소그룹 모임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다. 건강한 소그룹 리더는 이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은 결국 그 문제가 소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그룹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 1. 문제를 명백히 밝혀라**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은 진정한 문제의 본질과 그 원인들을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그룹 멤버 각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 목표를 설정하라**
문제 해결을 통해 소그룹 전체가 도달하기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한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들도 생각해 본다.

- 3.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 대안들이 얼마나 영터리 같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멤버들이 자유롭게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4. 대안들을 목표와 비교하고 평가하라**
위에서 말한 영터리 같은 대안

- 5. 대안들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평가하라**
4단계를 거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대안 두세 가지를 선정한다. 그리고 그 대안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찾아 본다.
- 6.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라**
소그룹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만한 한 가지 해결책을 선택한다. 함께 결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만 소그룹 안에 또 다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 7. 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우라**
그 해결책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실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안을 생각해본

리더는 문제해결능력 꼭 갖춰야 목표에 맞춘 대안책 제시 평가 최선의 해결책 실행하고 평가

- 8. 해결책을 실행하라**
이제 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긴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그룹원 모두가 그 해결책을 지키겠다고 서로 약속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9. 해결책을 평가하라**
위에서 제시한 모든 단계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이 선택한 해결책이 최선이 아니거나,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해결책을 평가할 계획을 세운다. 만일 당시의 소그룹에서 정한 해결책에 결함이 있다고 판명되면 문제 해결 과정 1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냥 놔두면 큰 문제로 번지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를 덮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사랑과 정의, 지구촌에 펼쳐야

(3면에서 계속)

실제 9.11테러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테러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편 악몽을 꾸기도 한다. 또 집중력 장애를 보이고 경보음이나 큰 소리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무력감, 죄책감,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거나 테러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의사들은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9.11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PTSD 환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9.11 테러 추모 행사와 관련 보도들로 말미암아 끔찍했던 테러 장면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9.11테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여서 추모 행사 규모 등이 다른 해보다 늘어나 9.11테러로 정신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는 예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가 9.11테러 10주년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달 4일 월드 트레이드센터(WTC) 단지 건설 현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WTC 단지는 쌍둥이빌딩이 무너진 자리에 만들어진 추모공원을 6개의 고층빌딩이 둘러싼 모양이다. WTC 단지 건설을 총괄하는 실버스틴 프러포티의 래리 실버스틴 CEO는 "10년 전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그림자가 이곳을 지배했다. 그러나 악의 공포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바로 다음날부터 재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9.11테러 당시 구조 활동을 했다는 안전 관리 담당 루이스 저스트리는 뉴욕 맨해튼의 월드 트레이드센터(WTC) 재건 사업 현장에서 "4년째 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 현장의 직원들도 추모와 슬픔, 분노보다는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공사 일정과 자체 공급 등을 담당하는 힐 스티븐은 "WTC 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고 밝혔다.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지난해

말 21세기 첫 10년 동안 미국을 바꿔 놓은 10대 사건을 조명하면서 WTC 재건사업을 포함했다. 타임은 당시 "WTC 재건사업이 미래와 자유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미국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미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새로운 WTC가 부활과 세계 평화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 9.11테러 10주년을 앞두고 세계인의 시선이 WTC 재건사업에 모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논리, 즉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나 문화 간의 충돌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가장 미국다운 색채로, 9.11 테러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나마 테러리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사실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이 중동의 시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공포와 분쟁만을 안겨주었을 뿐이고, 아랍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강화시켜, 진정한 무슬림들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최근 중동에서의 시민혁명이나 테러리듬이 힘과 지지를 잃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국인들 역시 "이슬람공포증"의 명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후(yahoo) 미국 웹사이트는 특적으로, 지난 29일부터 9.11추모 장을 만들어 잔인했던 테러의 기억에서 벗어나 전 미국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9/11 REMEMBERED: HOW WE'VE CHANGED-Stories of a nation transformed). 즉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한 살아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9.11테러를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의 어린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참담한 비극을 설명하면서,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잃어지거나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 추모 사이트 곳곳에 배어 있다.

결론으로, 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의 가장 큰 교훈은 군사적 성공이 승리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으로 상대방을 규정하여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서 승리하는 것이, 9.11사태 이후 탈라진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미국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치가 더 이상 아니라는 반성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권의 대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소위 "공공외교"를 전격적으로 펼쳐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등을 상대로 한 즉각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독선'에 등을 돌린 아랍권 시민들의 마음 얻기에 힘을 기울였다. 바로 공공외교를 통해서다.

미국은 '30세 이하 중동지역 청년층'을 공공외교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미국이 우선 신경 쓴 분야는 공보 프로그램이었다. 청년들의 귀에 박힐 만한 미국 팝송과 현지 음악을 적절히 섞어 틀어주며 사이사이에 뉴스를 끼워 넣었던 아랍어 라디오방송 '알사와'가 9.11이후 생겨난 대표적인 미국의 국제방송이다. 또 알자지라 등 아랍권 방송에 맞서 미국 시각의 뉴스를 22개 중동국에 전하는 '알후라' 방송도 이때 선보였다. 하지만 시청률은 대체로 저조하다. 필립 샘 남가주대(USC) 공공외교센터 소장은 "아랍권의 소식을 알지자라처럼 '아랍에서 아랍으로' 전달하는 것과 '미국에서 아랍으로' 전달하는 것은(근본적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전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9.11테러와 같은 고난 속에서 미국인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단순히 극단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대한 보복성 군사 개입이 아닌 미국의 압도적인 파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닌가? 라는 반성과 성찰이 미국사회에 조용하게 일고 있다. 그나마 미국이 미국다운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9.11사태 10주년을 맞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한인교계 SB48법안 철회 공동캠페인 전개

(1면에서 계속)

동성애자인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SB48은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를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를 배워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성적 소수자의 역할과 공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게 돼 정체성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독소법안이기엔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되는 우를 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동화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SB48법안 반대서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유권자이며 유권자가 아닌 자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청원서는 www.cc.org/register_vote에 가서

다운로드해서 보내거나 남가주교협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개인용 서명서는 www.stopsb48.com에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글자료는 www.TVNEXT.ORG로 들어간 후 자료실에서 프린트하면 된다. 서명이 끝난 것은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Attn: 김태오 목사 앞으로 9월 26일까지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10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2011년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2명 : 각 \$1,0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 (2페이지 이하)
3. 답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1년 10월 21일
수여자 발표 2011년 12월 5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이나 팩스(847)359-84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LChicago.org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CALVIN BIBLE COLLEGE AND SEMINARY U.S.A.

칼빈성서신학대학(원) 야간

2011년 가을학기 개강 [신입, 편입, 통신]

Since 1987

Course	Degree		
Bachelor	Th.B.	B.C.M	B.Ed
Master	M.Div.	M.Ed.	M.CM. Th.M. M. Miss
Doctor	D.D.	D. Min.	D. Ed. D.Miss
	Th.D	Ph.D.	

개학일시: 2011년 9월 12일(월) 하오 6시 (본교강당)
수시로 입학 가능

- 본교는 1987년 BPPVE California School. Code 1921031로 설립개교하여 Degree를 수여한다.
- 본교는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생활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양성하여 세상으로 보내낸다.
-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영감으로 절대가감 할 수 없는 초자연감으로 기록된 특별계시로 믿는다. (요 5:39, 눅 24:44, 벵전 1:20-21, 딤후 3:15-17, 계 22:18-19)
- 졸업 후에는 장로회 헌법에 따라 목사와 선교사로 임직 받음.
- 통신생의 편의를 위하여 CD 및 Materials 교재로 이수함.
- 본교는 Korea Research Foundation에 외국 박사학위 학교로 등록됨.

학장 : 김진수 목사 **이사장 : 김 여 진 목사** **대학원장 : 김 명 도 목사**
213)389-8987, FAX(213)389-8987 www.calvinbiblecs.org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calvincs@sbccglobal.net

교육칼럼

Family Worship을 성공하려면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패밀리 워십(Family Worship)을 시작하려면 주일 예배에 준비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맨 먼저 염려하는 것은 대체로 언어사용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사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든 진행을 미리 이중언어로 준비해 컴퓨터 프로젝트를 통해 파워포인트(Power Point)를 사용하면 충분한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과 경배는 1세와 2세의 복합된 찬양팀을 구성하여 한 절 한 절을 영어와 한글로 교제해 가며 찬양팀 리더들이 인도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설교는 먼저 자녀들을 위한 7분 영어 설교를 EM목사나 교육부 교역자가 담당하고 이어 부모와 장년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면 언어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투입되는 모든 예배 담당자들 즉 사회, 기도, 찬양팀, 특송자, 어린이성가대, 장년성가대, 광고담당자, 인내와 헌금위원 등을 부모와 자녀들을 똑같은 숫자로 구성하고 미리 리허설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 성공적인 Family Worship이 될 것입니다.

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은 가볍게 여기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 중에 더러는 "아이들이 시끄러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

히 생활로 정착되도록 주일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집중하여 담당자들을 훈련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들의 이해의 한계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부모들

물론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길을 떠나 제 길로 가버린다면 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 받아 교회와 선교를 지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선교지에 들어간 선교사가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면 거기에서 당장 쫓겨나고 맙니다.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이 걸으려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아도 문화적인 이질감이 생기면 대체로 부모의 말과 생각과 신앙을 받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Family Worship을 기획하고 예배의 요소들을 설정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어른들 중심으로, 어른들의 경험대로, 어른들의 생각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이해보다 더 발전적인 예배가 되도록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신학대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지요? -나성에서 이보영

A: 예, 옳으면서도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태평양바다를 헤엄을 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다가는 어느 정도 헤엄치다가 얼마못가서 힘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 밥이 되거나 심장마비, 그리고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KAL기체를 실으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비행기에 타야 합니다.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Fide(오직 믿음)로 얻습니다. 피상담자가 질문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을 문자 그대로

구원은 선한 행실이나 공로로 못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의미

읽어보면 이 구절은 마치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유의하여 살펴보면 그것은 구원보다 끝 날의 심판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 때에 주의 이름을 방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2-23).

그 날 곧 세상 끝의 심판 날에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많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로 말모는 주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욕심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한 마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차리며 주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겉은 거룩한 척하나 속은 이리요 강도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을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함이니라.

예배준비보다 부모세대 마음자세 더 중요...인내와 한계성 깨야 언어보다 문화이질감이 문제...문화 속에 들어가 신앙유산 전수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경솔히 여기고 경시하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전같이 아름다운 교회당은 오직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건물을 교육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아이들은 아무도 새 건물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 건물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아무리 건물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을 가진 어린 한 영혼보다 귀하지는 아니함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죽근에서 돕는다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 주님께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2부 또는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예배 중에 어른들만을 위한 예배 특히 엄숙한 전통적인 예배를 마련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Family Worship은 반드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과 헌신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브릿지(Bridge)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나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등으로 성격과 형식을 구분하여 예배의 다양성을 둔다면 누구도 불평이 없이 자기에게 맞는 예배, 자기가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인내입니다. Family Worship은 준비한 만큼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적어도 6개월은 참고 기다리며 시행착오를 수정해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Family Worship을 이벤트를 프로그램처럼 하지 말고 완전

히 자녀를 낳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릴 때 체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그들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세대가 살던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렇게 빠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후로는 시시각각으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전혀 체험해 본적이 없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세와 2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문제가 단순한 언어(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화에 관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갈 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충분히 알고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화와 문화적 언어를 전혀 모르고 그들을 복음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모던도 모르면서 무슨 포스트모던이나? 다음 세대 문제는 우리가 손 댈 수 없다. 그들 자신에게 맡기고 우리 부모는 우리 신앙이나 잘 지키고 살다가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대로 알고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며 우리 인간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이 세상 문화 속에 하늘나라 문화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타락한 세속 문화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두었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숨 쉬고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나 권위나 우리 문화의 옷을 벗어버리기가 아니라 할 각오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학, 대학원, 박사원>

- 신학과
- 선교학과
-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 상담학과
-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 종교음악학과
- 문예창작학과

SEVIS I-20 FORM 발행

학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 4:14)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신학대학교

* 통신으로 미국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설: Reformed Bible High School (미주개혁신고성경학교)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info@reformeduniv.org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학교주소 : 270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우편주소 : 3010 Wilshire Blvd, #228, Los Angeles, CA 90010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앙아시아의 남부 파탄(PATHAN)



파탄 또는 푸쉬툰(PUSHUN)족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전사 민족이다. 이들은 약 60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사울왕의 손자 아프가나 후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은 아마 뒤이은 침략자들과 고대 아리

인의 혼혈에서 발생했다고 짐작한다. 파탄은 그들 지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무슬림의 지도자와 행정관 그리고 군인들이 나왔다. 그들 중 대부분이 평지의 편안한 삶을 찾기 위하여 고지대를 떠난 반면, 산악지역의 고향은 계속 힘과 자유의 안전 지대가 되었다. 파탄족은 우아하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며 친절하고 매우 시려 깊고 맹렬한 증오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사교적이다. 그들은 종교적 신앙에 아주 헌신적이지만 즐기기도 한다. 명예를 사랑하며 사격술로도 유명하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파탄족은 아시아 남부와 중부에 살고 있다. 가족은 척박하고 거친 산들인더스와 힌두 쿠슈 산맥 그리고 이란의 시스탄 고원에 자리잡고 있다. 대규모의 파탄 공동체가 10개의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대가족 사회로 각 가족집단은 자체 토지를 소유하고 칼라(QILA)라고 하는 요새화된 거주지에 살고 있다. 모든 칼라는 공동 거주지와 사유 거주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두 지역 사이를 높은 벽이 나누고 있다. 관습과 전통이 파탄 사회의 통합된 부분을 형성한다. 그들 문화 본질은 생활의 준거가 되는 "도덕법전"에 나타난다. 이 법문법은 푸쉬툰말리(PUSHUNWALI, '푸쉬툰의 길')라 불리며 모든 파탄인들의 마음이다.

푸쉬툰말리는 종교적으로 준수되며 또한 9개의 실천을 포함한다. 즉 메마스 타(MEEMASTA, 모든 손님들에 대한 친절

과 보호), 나나와티(NANAWATI, 도망자가 피난처를 구할 수 있는 권리와 진실한 마음으로 평화를 제공하는 것), 바달(BADAL, 혈족간의 복수나 혈투를 할 권리), 투레(TURE, 용기), 사바트(SABAT, 성실), 이맘다(IMMADA, 이스티카마트(ISTIQAMAT, 인내), 가이라트(GHAYRAT, 재산과 명예 방어) 그리고 마루스(MARUS, 자신의 여인에 대한 방어가 있다.

파탄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한쪽 어깨에 단추가 달린 긴 소매의 면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수놓은 조끼를 입으며 허름한 양복바지를 입는다. 그들은 또한 독특한 터번을 하는데 이것은 부족 소속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돌려댄다. 접근이 불가능한 특정 지역에선 장총, 권총, 칼 그리고 다른 무기들도 기본적으로 착용한다.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같은 형식의 옷을 입지만 대부분 더욱 화려한 것을 사용한다. 파탄 부족들은 높은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테

생활을 하는 유목민까지 다양하다. 부유층들은 때때로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기르기도 하지만 다른 직업을 갖지는 않는다. 남자들은 대개 집 밖의 어려운 일을 하며 여인들은 집안의 일을 책임진다. 전통적으로 유산은 모든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코란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딸들은 대개 제외된다. 다프타리(DAPHTARI)는 부족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부족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파탄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다.

신앙
파탄인 대부분은 수니파 무슬림이다. 이슬람은 브라만교의 제사와의 불교의 엄격함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거대한 자유와 연합의 힘으로서 그들에게 들어왔다. 이 때문에 그들의 이슬람에 대한 근본 신앙과 계속적인 헌신 이 매우 강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탄족은 잦은 전쟁으로 알려진 민족이다. 1979년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엄청난 공격을 했다. 그때 이후로 거의 3백만 아프간인들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도망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파탄인들이었다. 파키스탄은 소련의 정면이 남긴 결과와 계속되는 내전으로 극한 혼란에 빠져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러 선교단체에 의한 사역의 대부분은 그 나라의 불안 때문에 중단됐다.

파탄인 대부분은 매우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상태(주로 물 부족)로 살고 있다. 성인의 대부분은 또한 문맹이다. 자질 있는 의료팀과 학교 교사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들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족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접근하려면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UMC 일부, 동성애 관련 교단법 개정 시도

미국 연합감리교(UMC) 목회자 700여 명이 교단을 보다 동성애에 포용적인 분위기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왔다. 이들은 지난 주말 오키오 주 휴런에서 대회를 갖고 내년 4월 열릴 총회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교단법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UMC는 교단법에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스로 동성애자로 밝힌 이가 목회자 후보생이 되거나 목사로서 안수 받아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목회자들이 동성결혼을 주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연합그리스도교회(UCC),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 미국성공회(BC)와 최근 미국장로교(PCUSA)까지 미국 주류 개신교단들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축복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서도 UMC는 여전히 이를 규제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선 열린 최근의 총회들에서 교단법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투표들이 실시되었지만, 모두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동성애에 관한 교단의 입장은 강력하고 현재로서는 쉽게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회의 준비자 중 한 명인 시카고의 트로이 플러머 목사는 일부의 변화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어쩌면 매우 극적인 일이 내년 총회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과 해외 총대들로부터 활발히 표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UMC 내 목회자들의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클리브랜드의 켄 초커 목사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축복에 관한 교단법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내 바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캔튼의 헛 해리스 목사는 "동성애는 간

음이나 불륜과 같은 분명한 죄악"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점차 교단 내로 확산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들은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원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얼마 전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허용된 PCUSA 내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교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래를 논의하고자 개최한 대회와 같은 기간 열려 눈길을 끌었다. 2천여명의 PCUSA 목회자들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대회를 열고 동성애는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비아에 복음의 자유를"

25일 리비아 시민군이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요새 곳곳을 점령한 가운데 수도 트리폴리는 시민군에 의한 해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인명 살상이 벌어져 세계 크리스천들은 리비아의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를 드리고 있다.

리비아는 42년간 카다피가 철권통치를 하면서 선교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세계적 기도 정보지 '오퍼레이셔널월드' 최근호에 따르면 리비아 인구 중 97%가 무슬림이고, 로마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는 2.6%에 불과하다. 그중 콥틱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 성도 수가 가장 많다. 러시아-세르비아-그리스 정교회 등도 어렵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개신교 가운데는 성공회가 리비아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트리폴리에 있는 '그리스도 왕 성공회교회' 합디다오우드 신부는 최근 열린 금요 예배에서 카다피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중동을 흔들고 계시며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교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주민 등이 출석하는 이 교회는 한때 250명이 믿음생활을 했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이 검문을 강화하면서 이주민이 바깥출입을 자제해 최근엔

창조론과 기독교 비방한 교사 상대 소송 기각

미국에서 수업 도중 창조론과 기독교에 대해 비방한 교사에게 소송이 기각됐다. 미션 비에호(Mission Viejo)에 위치한 카피스트라노 밸리 고등학교(Capistrano Valley High School)의 역사 교사인 제임스 코벳(James Corbett)은 2007년 당시 "종교적 미신에 사로잡힌 년센스"라고 하는 등 창조론과 기독교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학생이었던 채드 파난(Chad Farnan)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경멸하며 비난하고 알본" 코벳의 언행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 제9연방순회합소법원 3명의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레이몬드 피셔 판사는 "문제의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 법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사의 도전적인 진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코벳은 이 판결에 대해 "자유로운 사고와 학문적 자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 아동 5명 중 1명이 굶주려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미국 아동의 5명 중 1명이 빈곤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한 기독교계 단체는 의회에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안정장 프로그램 중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애니 케이스(Annie E. Casey) 재단에 의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미국 내 공식적 아동 빈곤 비율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18% 증가, 20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의 사회 정의 네트워크 기구인 소저너(So-journers)는 이에 대해 "의회가 육아 보조금 같이 빈곤층 해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정치인들, 기독교인들 '기생충' 비유

이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정부로부터의 증가하는 탄압에 마주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인권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최근 들어 기독교인이 체포되는 사건이 자주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압축, 절감-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을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 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대진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8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제작/부품회/행사/리츠 신품
복합 원본만 보나 무시한 편집, 지차, 복제, 표지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힐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피복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실고, 전량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백에 근접하여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청)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세요
매월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정품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직 판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통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인생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링크 활용가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활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종래가중 가장 비싼것보다 70% 낮은 가격에 최상품의 E.Y Enterprise를 제공
- 엔터프라이즈급
- 작업량 2000장 이상
- 신속한 A/S 및 보정의 보장

실용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2063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1961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종교다원주의 연구 (3)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종교다원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하)

'인간 중심'의 전통

14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Renaissance, 재탄생)는 '인간 중심'이 강조되는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운동이었다. 그 당시 예술과 지적 활동의 초점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고전(古典)에 대한 재인식과 유럽문화의 부흥을 가져온 것 이외에도, 인간의 가치와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르네상스의 사상은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개혁자들의 노력한 결과 '하나님 중심'이 회복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인간 중심' 사상은 전에 비해 훨씬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17세기에는 인간의 자율적 이성과 과학적 사고의 절대성에 근거한 합리주의가 성행하더니, 곧 이어 18세기에는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적 정신이 지배하였다. '인간 중심'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조점의 변화만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 불행하게도 근세 교회는 과거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인간 중심'의 거센 영향력을 중단시

킬 힘을 지니지 않았다.

'인간 중심' 경험주의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3인의 대표적 경험주의 철학자들을 소개하려한다. 우리는 그들이 처음에는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출발하였지만, 그들의 종착지는 철학적 회의주의였다. '하나님 중심'을 포기한 채 속화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율적

라는 고전적 경험주의의 논지를 발전시켰다.

그가 설명하는 경험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우리 앞에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 모든 꽃은 꽃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속성, 즉 크기 모양, 조직 등이 있는데, 로크는 이것을 '제1성질'이라고 불렀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감각을 우리 안에 산출하게 하는 색깔, 냄새 등이 있는데, 그는 이것을 '제2성질'이라고 불렀다. 꽃으로부터 발산되는 '제2성질'은 매우 작은 입자들로서, 우리의 감각 기관을 자극하여 꽃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한다. 그 결과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인물은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이로서, 로크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날카롭게 비판한 신비주의의 영향을 지녔던 인물이다. 버클리는 로크가 '제1성질'과 '제2성질'을 분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크에 비해 더욱 철저한 경험주의자였던 버클리는 결국 내가 지각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버클리는 인간의 정신이 대상을 결정하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이론 개념을 부정하는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을 수용한 것이다.

세 번째 인물은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이다. 로크의 '제2성질'을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었는데, 인상은 감각에 의해 직접 주어진 자료이고 관념은 기억과 상상력이다. 그는 모든 관념은 인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관념의 대상뿐 아니라 관념이 맺히는 내적 실체도 의심하였다. 왜냐하면 단순히 관찰하는 대상의 관념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꽃을 관찰하면서 가진 생각이 마음에 기억으로 남아있기

18세기 경험주의는 근세 초기부터 강조되었던 자율적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냈다. 그 결과 근세 후반에는 이성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 예로 흄을 손꼽을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은 마음에 주어지는 인상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성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감정과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다양한 운동의 등장으로 전개되었다. 낭만주의(浪漫主義, Romanticism), 주의주의(主義, Voluntarism), 그리고 주관주의(主觀主義, Subjectivism)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낭만주의는 이성주의의 기계적 사고관을 비인간적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거부하는 대신,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 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19세기 초반에 유럽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오랫동안 이성과 과학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하였던 것은 인간 내면세계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낭만주의는 근세의 고질병이었던 '인간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주의 신학의 근원이 바로 낭만주의였다는 사실이 한 예가 된다. 주의주의와 주관주의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치닫던 근세는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다. 근세, 즉 모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근세보다 더욱 '인간 중심'이다. 포스트모던이란 토양에서 성장한 종교다원주의가 지닌 근본 사상이 철저히 '인간 중심'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중심 사상이 포스트모던시대에 맞춰 종교다원주의로 발전 경험주의 신비주의 낭만주의로 심화, 자유주의 신학 근원조성

근세 초기에 나타난 연역적(演繹的) 방법이다. 형식을 중시하며 측정이 가능한 대상에게 수학적 기술을 적용한다. 다른 하나는 귀납법 방법이다. 측정이 가능하고 실험적 증거가 있는 사실만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 방법은 프란시스 베이컨(1561-1626)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화 되었다. 그런데 18세기의 철학자들이 더욱 '인간 중심'의 경험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인간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였던 근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생겨난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가장 먼저 소개할 인물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서, 그의 경험주의가 18세기를 지배하였다. 그는 철학을 경험적 관찰과 상식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으로 바꾸어 놓은 인물이다. 그는 우리에게 있는 지식은 태어날 때에 선천적으로 지닌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 대신 "우리의 모든 관념들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각되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꽃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관찰하는 꽃이 실질적으로 꽃이 되려면 반드시 색깔과 냄새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색깔과 냄새를 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그것이 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꽃이 아름답다는 깨달음은 꽃 자체가 지닌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그 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로

때문이다. 그러나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기억의 수준을 넘어, 그렇다고 하는 일종의 신념으로 남게 된다.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워진다. '인간 중심'의 경험주의는 객체와 실제 모두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갖게 한 것이다. 그 당시 흄은 회의론(懷疑論, skepticism)으로 인하여 무신론자라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더욱 심화된 '인간 중심'

세계로 떠나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목사: 송규식 주일 10:00,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주일 3부 예배: 오후 8:30 주일 4부 예배: 오후 9: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오후 5:30 목회자: 오후 6:30 목회자: 오후 7:30 목회자: 오후 8:30 목회자: 오후 9:30 목회자: 오후 10:30 목회자: 오후 11:30 목회자: 오후 12:30 목회자: 오후 1:30 목회자: 오후 2:30 목회자: 오후 3:30 목회자: 오후 4:30 목회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7. 창조주와 창조 방법

구조가설이란 창조 이론도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과정에 대한 기록이 과학적인(사실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창조 기록의 문장구조가 시간, 선연적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의 "구조가설"은 과학시대에 성경과 복음을 옹호하려는 학자들이 억지로 만들어 낸 창조 이론이다. 창세기 1장의 1일은 4일과, 2일은 5일, 3일은 6일과 상관이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그림). 그래서 이 창조 이론에 "구조 가설"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 구조가설이 나온 배경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진화론이나 진화론을 받아들인 창조이론들이 비성경적이라기보다 반성경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진화론: 하나님 없이 물질은 처음부터 존재하였으며 모든 생명체는 물질법칙의 작용으로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사람도 동물들 중의 하나다.

2)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빅뱅을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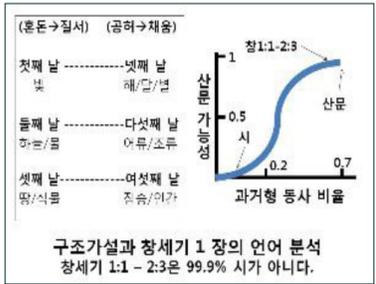
3) 점진적 창조론: 하나님께서 진화의 순서대로 그러나 수억 년의 지질시대 동안 점진적으로 창조하셨다.

4) 다중격변론: 최근 한국에서 나온 점진적 창조론의 야무다.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격변 과정에서 진화의 순서로 멸종과 창조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사실, 빅뱅이나 46억년의 지구나이 등 과학적 사실(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이 들어가기 전에 언급한 반성경적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 창세기 1-11장을 실제 사건이 아닌 시나 설화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창조 과정을 굳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다, '성경은 과학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자책의 이론이다. 교육자책이란, 제 몸을 상하게하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이라는 뜻으로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만다!

창세기 1장을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거나, 언어 감각이 전혀 없어 시와 서술적인 글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히브리어 창세기 1장의 단어들을 분석해보면 시가 아니라 산문일 가능성이 99.9%(그림). 요즘은 정형시가 없고 산문시를 쓰기 때문

성경옹호 과학자들이 만든 구조가설은 창조과정을 '시'라고 주장 빅뱅, 46억년 지구나이 비과학적...하나님말씀 그대로 전하고 믿어야



에 과거에도 산문시가 있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경에서 시가서로 구분하는 시들은 정형시다. 읊기도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원전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요즘은 정형시를 안 쓰는 것이 아니고 타락의 결과로 못 쓰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은 절대로 시일 수가 없다!

또 이 이론의 구조 분석은 아주 엉성하기 짝이 없다. 물론 1일 날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류가 살 바다는 3일에 형성되었으므로 구조가 어그러져 있다. 해와 달과 별들은 2일째 만들어진 공중에 두었고, 5일 날과 6일 날에 창조된 동물들은 3일 날 창조된 풀과 씨와 채소를 먹도록 하였으므로 여기서도 구조가 어그러져 있다. 이 구조가설은 물질과 언어의 창조자가 이렇게 엉성한 시로 자신의 창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서인 읊기에 보면 하나님의 시도 있고 읊과 다른 친구들의 시도 있는데 내용은 제외하고 그 형식만 보아도 하나님의 시는 100점이고 사람들의 시 중에 최고점인 읊의 시는 30점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독특한 사람의 설명

로 도움 받아야 하는 엉성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창조하신 사실을 그냥 그대로 서술하신 실제 사건이다.

사실을 회피한 기독교는 결코 설 수 없다. 과학적이건 비과학적이건 '사실'을 회피하는 이론은 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조가설은 사실을 회피한 이론이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빅뱅 이론이나 46억년의 지구 나이는 확인될 수 없는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많은데 구조가설을 선택한 사람들은 사실일 수 없는 그 이론들을 과학적(실제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감추기 위해 사실 문제를 배제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구조가설은 사람들이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추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이론이다. (이런 태도가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이유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진화론을 받아들였건, 진화론과 타협한 창조론을 받아들였건, 사실을 회피한 이론을 받아들였건, 상관없이 사실을 배제한 창조 이론들이 수 만개의 교회 문을 닫은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도 닫게 할 것이다.

빅뱅이나 46억 년의 지구의 나이를 사실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도 있다. 하지만 빅뱅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빅뱅은 하나님도 없고, 팽창의 중심도 없고 끝도 없다는 전제(가정 혹은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현실(과학법칙)과는 반대로 가스가 서로 뭉쳐 별을 만든다는 비과학적인 이론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도, 나

이를 알고 있는 암석을 측정해 보면 실제 나이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수천 혹은 수만 배 오래된 것으로 나온다. 이런 사실은 실제로 연대를 측정하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반감기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확인할 수 없는 가정(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이런 '과학적인'이란 속임수에 또 속았고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창세기 1장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상상한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꼭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장(히브리서 11:3-6)에서 그렇게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분의 말씀을 감추거나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의 방법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 시나 설화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곧 알게 된다. 빅뱅도 추상적이지 않은 확실한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이 아닌 빅뱅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성경은 사실이니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의 생각이 과학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하와와 아담 같은 것이다. 사실인 창조 기록을 달리 해석해서 창조자를 우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의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가슴 사리게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성품칼럼 (21)



이영숙 박사
(종교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유아기 자녀에게 들려줘야 할 부모의 말 한마디

자녀들이 성장하는 연령에 따라 부모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그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우에 맞는 적절한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지대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연령에 맞는 대화법을 통해 그들의 성품 즉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품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유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다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들려주는 부모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각인이 되어 그들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출생 후 5세까지의 경험들이 한 인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유아기 자녀를 위한 대화를 소개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십시오.
유아기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부모는 더 섬세한 애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께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어루만져주고 흔들어주면서 다양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을 통해 자녀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요. 이런 충분한 사랑을 느껴본 아이가 성품 좋은 아이로 자라게 되고 우수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표현해주는 부모의 말 한마디는 공감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감수성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유아기 자녀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들려주세요.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는 네가 있어서 살맛이 난다."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셋째, 성품을 칭찬하고 훈련하는 말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칭찬을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이 시기에 성품을 세우는 말들을 들려주세요. "네가 엄마 말에 순종해 주어서 고맙구나." "아빠가 너를 부르는 단 한마디에 달려오는 네 경청하는 성품이 놀랍구나." "자기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네 책임감의 성품이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짜증내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니 정말 기분이 좋아."

넷째,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했니? 너는 참 독창적인 아이야.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글쎄~ 네 질문이 너무 어렵네. 우리 한번 함께 그 대답을 찾아보자."

다섯째, 동생을 뽐낼 때 힘들어 하는 큰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
유아기 때 동생을 본 첫 아이 마음은 시앗에게 남편을 빼앗긴 조강지처의 마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배신감, 억울함, 피해의식으로 무척 힘들어 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므로 이 때 이렇게 격려주세요. "동생에게 멋진 형님이 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네 도움이 없으면 엄마 정말 힘들 거야." "동생을 보더니 더 멋지고 의젓해졌구나. 널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야."

각인의 시기인 유아기에 최대의 예우를 갖춰 아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유아기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대접해야 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너는 큰일을 이룰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태도에 담아 유아기의 자녀를 보살피면 부모의 말과 양육 태도가 그대로 아이에게 각인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김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성도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세례 기도회: 오후 7:00</p>	<p>풍고매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영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맨얼교회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9:30 수요 기도회: 오후 7:30</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영국)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시애틀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계업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앨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영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기도회: 오후 7:30</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성도 기도회: 오후 8:30</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30</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김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탬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아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h2 style="margin: 0;">하와이지역</h2>		<p>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필라복음화대회 9월16-18일 영생장로교회 강사 김문훈 목사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 회(회장 강승호 목사)는 지난 22일 오후 8시 제4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복음화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을 발표했다.

새한장로교회에서 열린 실행위 1부 경건예배는 이대우 부회장 사회로 임관호 목사(서기) 기도 후 강승호 목사가 고전15:9-10을 인용,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겸손하고 헌신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영선 목사가 보고 온 북한 실정을 소개하고 김장만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는 강승호 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회부보고는 지난 13일 광복절 예배를 한인회 행사에 앞서 협회 주관으로 전영현 목사(조국통일본부위원) 사회로 강승호 회장 기도, 이용걸 목사 설교로 은혜롭게 마친 것과 서재필재단 교육관

건립 후원행사로 교협이 후원한 서울 신학대학교 카펠라합창단 공연을 보고했다.

이날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몽고메리 카운티 형사법원 행정처장 후보 안문영 변호사 협조 △장학생 선발은 임원회에서 주관해 모금하고 복음화 대회 시에 전달 △헌법 개정위원회는 8월 30일 세전교회(김선준 목사 담임)에서 개최 △제32회 정기총회는 10월 16일(주) 오후 6시 필라 한빛성결교회(담임 이대우 목사)에서 석식

후 개최 △대필라 복음화대회.

한편 복음화대회는 9월 16(금)부터 18일(주)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란 주제로 부산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강사로 선정하고 성회 장소를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목사)서 하기로 확정했다. 대회 일정은 9월 16일(금) 오후 8시, 17일(토) 오전 10시 교역자 및 제직 세미나, 오후 8시 대회, 18일(주) 오후 6시 대회.

(기사제공: 필라교회)



강석희 어바인 시장 주하원의원 당선기원예배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 연방하원 당선기원예배

45지구... “자신 낮추고 남을 섬기며 최선 다하겠다”

강석희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장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당선 기원예배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 시장은 답사에서 “하나님께서도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내성적인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미국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영어를 배우게 하시고 15년간 섬김의 훈련을 시키셨다. 1992년 LA 폭동을 계기로 한 인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미국 95번째의 어바인 시의원을 거쳐 시장으로 세우주셨다”고 전하며 “어바인 시에 최초의 비 백인 시의원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한인시장인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이다. 연방하원의원은 미주 내 총원이 435명으로 70만

명을 대표하는 당선되기 매우 힘든 자리다. 앞으로 15개월 동안 성령 충만한 선거활동이 되리라 믿는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박효우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 기도 후 정영호 목사(남가주목사회 총무), 성경봉독에 김장현 목사(남가주회장교회), 설교에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 격려사에 홍명기 회장(삼미대재단 이사장), 김봉천 회장, 액자 및 도서 전달에 류당열 목사(한기총미주총회 대표회장) 답사에 강석희 시장, 축도에 박영찬 목사(남가주교회 총무)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예배 중에 특별기도는 양승걸 목사(목우회 회장)가 강석희 시장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하원의원 당선을 위하여, 최희량 목사(남가주교회 중경회장)가 한미 양국을 위하여, 표세홍 목사(LA교역자협의회 회장)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유웅열 목사(한기총미주총회 고문)가 LA시를 위하여, 차운준 목사(아나하임엘리트교회 시무)가 어바인 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강부웅 목사(한기총미주총회 공동회장)가 강석희 시장 연방하원 당선, 한미 양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강석희 시장이 출마선언을 한 제 45지구 지역은 어바인, 타스틴, 빌리 파, 애나하임힐스, 레이크 포레스트, 랜초산타마리아라, 미슨비 에로, 알리소 비에호 등이다.

(박준호 기자)

2011 밀알의 밤 행사에 닉 부이치치 초청

남가주밀알선교단, 수익금 전액 장애인 장학금으로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남가주 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의 2011 밀알의 밤 행사에 팔다리가 없는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사지 없는 삶 Life without Limbs 대표)가 메인 스피커로 출연한다.

오는 10월 1일(토)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와 2일(주)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오후 7시에 각각 개최되는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1년 제 14회 밀알의 밤’에서 강연을 펼칠 예정인 닉 부이치치는 24일 오전에 JJ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연회와 출판기념회 참석차 방문한 한국에 좋은 기억을 지니고 있다”며 “전 세계 40개국 가까이 다녔지만 한인들의 기도하는 삶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기에 미



2011 밀알의밤에 메인스피커로 참가하는 닉부이치치가 설명하고 있다

주 한인들과의 만남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1982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을 수도, 언젠가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을 거라는 절망 때문에 8세 때 처음

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이후 두 번이나 더 삶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28세의 닉 부이치치는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사지 없는 삶’(Life Without Limbs)의 대표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전 세계를 누비며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출간한 ‘닉 부이치치의 허그’(원제: The life without limits)를 소개했다. 책에는 얼굴과 몸뚱이리뿐인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조건을 타고났지만 인생을 향한 열정과 유머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젊은이의 치열한 도전이 담겨 있다.

2011 닉 부이치치 초청 밀알의 밤 행사는 수익금 전액이 2012년 장애인 장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11월 5일이며 수여식은 12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행사 및 티켓문의는 (714)522-459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목회서신

‘가인의 신앙’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은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웬만한 것은 마다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가인은 자아가 살아있는 나머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경험했던 비극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니다. “가인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심계명의 중심 사상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소홀이 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형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서 형제에 대한 자신의 무책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그분과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모르고 스스로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그분이 받으실 수 없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영에 묶여서 기계적으로 교회를 찾고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좁히는 배해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4>기쁨과 영광교회</h4> <p>담임목사: 권희수 교역목사: 캐서린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예배: 오후 11: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 오전 8:30(토)</p> <p>Tel: (718) 329-7261, Fax: (718) 329-8771 47-48 Edison Ave., Flushing, NY 11355 www.kyunggwangchurch.com</p>
<h4>낙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홍영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Tel: (718) 427-7781, Fax: (718) 427-8231 47-20 Queens Blvd., Flushing, NY 11354 www.nakanchurch.com</p>	<h4>뉴욕갯세마대교회</h4> <p>담임목사: 이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Tel: (718) 659-2261, Fax: (718) 659-2282 45-75 Flushing Blvd., Flushing, NY 11355 www.gatsema.com</p>	<h4>뉴욕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40-04 Skillman Ave., Bayside, NY 11704 www.nyevangelical.org</p>	<h4>뉴욕빌라델피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 오전 8:30(토)</p> <p>Tel: (718) 329-8771, Fax: (718) 329-8231 2 Broad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70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Tel: (718) 427-7781, Fax: (718) 427-8231 47-20 Queens Blvd., Flushing, NY 11354</p>	<h4>뉴욕순복음안도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 오전 8:30(토)</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47-20 Queens Blvd., Flushing, NY 11354 www.nyevangelical.org</p>	<h4>뉴욕 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9:45(월-토)</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47-20 Queens Blvd., Flushing, NY 11354</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77-0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락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0: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42-12 75th Ave., Flushing, NY 11355</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p> <p>Tel: (201) 342-6122(2차), Fax: (201) 943-5264 2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범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20-27 104 St., Flushing, NY 11355</p>	<h4>봉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Tel: (212) 329-7781 / Fax: (212) 329-8231 200 East Ave., Hightstown, NJ 08520</p>	<h4>순복음뉴욕교회</h4> <p>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월-토)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120-30 31st Ave., Flushing, NY 11357</p>	<h4>어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88-30 47th Ave., Flushing, NY 11357</p>	
<h4>주미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70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p>	<h4>주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8:00</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188-12 75th Ave., Flushing, NY 11355</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8:00</p> <p>Tel: (201) 342-6122(2차), Fax: (201) 943-5264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핀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p> <p>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 643-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p>	<h4>핀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15(월-토)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p> <p>Tel: (212) 329-7781 / Fax: (212) 329-8231 88-00 23rd Ave., Sunnyside, NY 11358</p>	<h4>한미음침교회</h4> <p>담임목사: 박아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p> <p>Tel: (212) 277-3103, Fax: (212) 277-3104 70 Grand St., Sunnyside, NY 1135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866-0009 Fax: (323) 866-0048 N.Y.: Tel: (718) 329-7781 Fax: (718) 329-8231</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8:00 세례기도회: 오전 8:40</p> <p>Tel: 5577-1485, Fax: 5578-8543 Rua Anjoes Paz, Vila Central A, Paulista - CEP 05229-019</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8:00</p> <p>Tel: 011-55-11-3270-8232, 3277-3142 R. Lúcio Alves 11, Lacerdosa SP, CEP 05055-010</p>	<h4>브라질 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8:00</p> <p>Tel: (55) 11-3270-8232, 3277-3142 R. Lúcio Alves 11, Lacerdosa SP, CEP 05055-010</p>	<h4>아르헨티나 재일교회</h4> <p>담임목사: 최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8:00</p> <p>Tel: (54) 114-635-7782 AV. CABA 6090 2353 CAP.FED., B.B.A.R.,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황이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8:00</p> <p>Tel: (56) 277-3103, Fax: (56) 277-3104 Santiago Centro - 3 Calle 325 Chile</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권 목사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1, 2, 3차 수제니에르 빌라)</p> <p>Tel: (596) 271-374-688 E-mail: imhan@paraguay.com Caracas RD, 1001, Asocion-PARAGUAY</p>	

동부교계 기사판



Little Voice Benefit Concert

퀸즈 YWCA가 YW-ACCESS 프로그램 후원을 위해 Little Voice Benefit Concert를 연다. 일시는 9월 10일(토) 7시 30분 뉴욕호신 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동 프로그램은 여러 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17-21세 사이의 고교 중퇴생들에게 GED 패스와 또한 직업개발 훈련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Little Voice Benefit Concert 참여 학생들은 친구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다년간 자원 봉사하고 있다. 판매된 티켓과 도네이션은 모두 퀸즈YWCA YW-Access 프로그램에 기부된다.

▲문의: (718)554-2055, 353-4553

목회와 선교위한 컴퓨터무료강좌

인터넷 언론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제 15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강좌가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총 4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기초반과 '중급반 두개의 클래스로 운영하며 이론보다 실습위주로 강의한다. 수강자는 노트북과 마우스, 파워케이블을 지참해야 한다. 기초반은 마우스 다루기, 이메일하기와 인터넷 검색 등을 다루며 강사는 문석진 목사로 선착순 12명. 중급반은 기초반을 수료한 자로 신청 후 개별 면담한다. 선착순 6명. 강사는 임병남 목사. 수강료는 무료이며 모든 등록은 9월 13일(화)까지 마감한다. 등록비는 20달러, 개근자에게는 환불한다. 동 무료컴퓨터강좌는 뉴욕교회(회장 김원기 목사)와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익 목사),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이 후원한다.

▲문의: (347)538-1587(문석진 목사) 또는 czoneus@gmail.com.

백투워십 스태프 훈련세미나

백투워십(이종길 간사)이 주최하는 제 2회 '예배학교' 훈련세미나가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라싱 조은교회(담임 장용선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경환 목사이며 강의 일정은 1주-Hunger for God 2주-The Glory of God 3주-Jesus, the Glory of God 4주-Intercessory Prayer(1) 5주-Intercessory Prayer(2) 6주-Worship, Intercession, and Spiritual Warfare 실제. 참가비는 50달러.

▲문의: (646)284-2703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가 9월 9일(금) 오전 10시30분 본 교회당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시작된다. 성인대학은 60세 이상 노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

▲문의: (718)886-4040

제 7회 뉴욕 청소년리더십 캠프

패밀리 터치 (대표 정정숙 원장)가 주관한 7회 청소년 리더십캠프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뉴욕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성공하는 십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7가지 습관과 원칙, 긍정적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적 발견 및 사명서 작성 등을 배움으로 리더의 자질을 자기 습관으로 만들도록 했다. 총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음 리더십 캠프의 리더가 되겠다고 미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리더십캠프는 매년 6월말(NJ)과 8월말(NY)에 열린다.

▲문의: 뉴저지 (201)242-4422, 뉴욕 (718)224-4477



“평신도와 함께 이뤄가는 교회성장”

필라 영생장로교회 설립30주년기념 목회자초청세미나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미국 전역에 있는 담임목회자들을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36명의 타 지역 목회자들과 본 교회 사역자 12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이용걸 목사의 개혁주의신학에 바탕 한 목회철학과 영생교회 성장비결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담임 이용걸 목사는 “지난 30년간 영생장로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쉽지 않은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받은 축복을 나누고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며 “목사와 평신도 특히 장로와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친밀한지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신은 심방중심과 바울 목회철학만 강의하고 실제적으로 사역의 95%를 담당할 장로들이 참석목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걸 목사는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며 “영생장로교회 사역을 본보기로 미주 내 한인교회들이 함께 성



영생장로교회 주최 목회자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의자에 앉은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용걸 목사.

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용걸 목사의 목회철학과 심방 그리고 강해 설교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동 교회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새 신자 양육과 관리, 새 생명 훈련과 전도폭발 훈련, 성경통독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감사했다. 특히 장로 강사들의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각 교회에 적용하려는 도전으로 다가왔다.

특별히 둘째 날 저녁에는 당회원들과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영생장로교회의 성장비결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즉 평신도의 헌신이 교회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유원정 기자)

KCBN 공개모금방송 26,373불 모금

23, 24일 '뉴욕교인들의 KCBN 사랑' 표현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뉴욕기독교방송 KCBN(사장대행 문석진 목사)이 실시한 공개모금방송에서 총 26,373.40달러가 모금됐다.

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는 “헌금하신 분들의 정성어린 손길과 KCBN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아졌다고 본다”며 “약정액 26,373.40달러가 시시하는 것은 결코 KCBN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뉴욕 교인들의 사랑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CBN은 공개모금방송 첫날은 오영아, 조순재, 문석진 아나운서가 차례로 진행을 맡았고 김원기 목사(뉴욕베데스다교회), 박태보라 사모(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지용 목사(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 C&MA)는 “30년 동안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번도 갈등 없이 목회했다는 점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용걸 목사의 아버지회와 일사각오의 신앙을 나의 목회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용 목사는 세미나 기간 내내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특히 마지막 날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가장 높은 59층 빌딩 내 식당(영생교회 교인)에서 식사를 하고 43층까지 올라가서 시내를 구경하는 등 지극 정성의 대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로교 감리교 등 교단을 망라하고 뉴욕과 플로리다, 디트로이트 LA 까지 지역을 초월해 참석한 목회자들은 2박3일간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 주최 측에 감사사를 보냈다.

한편 영생장로교회는 설립기념으로 11월에 40명의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식과 브라질에 초등학교 설립과 선교사 파송, 12월에 '메시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알선교합창단장),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최재복 장로(뉴욕한인제일교회), 정성만 목사(뉴저지벨렐교회) 등이 공동 진행자로 나섰다.

둘째 날에는 문석진, 오영아, 조순재 아나운서가 차례로 진행을 맡았고 이사장 유세용 목사(뉴욕제일교회), 신석호회계사, 미사리 변호사, 손성대 장로(뉴욕장로성가대장), 이다윗 목사(퀸즈한인교회지회),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등이 공동 진행을 맡았다.

한편 이번 모금방송은 156한아름과 유니온한아름 등에서 야외 공개모금방송을 함께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최창섭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장(앞줄가운데) 축하만찬에 참석한 상임위원들과 뉴욕지방회원들

최창섭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장 축하만찬 상임위원회, 내년총회장소·예산통과 결정

지난 6월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CKSBCA) 총회장에 당선된 최창섭 목사(뉴욕 에베레셀선교회 공동담임)의 축하만찬이 동 총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9일 저녁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최창섭 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총회를 잘 섬겨 본 총회가 하나님나라 건설에 앞장서며 850여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일 뉴욕지방회장의 사회로 김승호 제1부총회장의 기도예에 이어 상임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한인총회는 8개 상임위원회와 30개 지방회를 대표하는 실행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상임위원회 모임에

서는 내년 총회장소와 예산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실행위원회는 10월말 아틀란타에서 열린다.

총무 엄종우 목사는 총예산은 1백만 달러 정도 되며 국내 해외 선교부, 교육부, 목회, 여성교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총회 장소는 보통 미남침례교 총회장소와 동일하거나 지역 한인교회 사정에 따라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며 내년 미남침례교 총회가 열리는 뉴올리언즈는 한인교회가 2곳밖에 없어 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최창섭 목사가 평소 소망하는 덕으로 총회장에 선출됐다고 축하했다.

(유원정 기자)



지라니어린이합창단이 공연 첫 순서에서 캠프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

‘멈출 수 없는 희망의 노래’ 지라니어린이합창단 미동부지역 순회 성료

케냐 지라니 어린이합창단(Jirani Childrens Choir, 단장 임태종 목사)의 두 번째 뉴욕순회 공연이 지난 27일 저녁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멈출 수 없는 희망의 노래’(The Unstoppable Song of Hope)라는 주제로 8월 6일부터 미동부지역을 순회한 동 합창단은 이번에 할렐 어린이합창단도 합세해 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동 합창단은 1시간여 동안 클래식, 흑인영가, 미국 대중음악, 아프리카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불렀다. 특히 확실한 발음의 한국어 찬양은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라니 어린이합창단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외곽에 자리한 빈민촌 ‘고르코초’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을 단원으로 2006년 창단됐다. ‘지라니’는 스와힐리어로 ‘이웃’을 뜻한다.

(유원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중언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6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	표지	3.5cm × 4.5cm	\$600.00
광고	전면칼라	포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력을 넣어줌			
광고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250.00
		15.5 × 2.8cm	
광고	물류 Listing	Listing size	\$100.00
	속화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시택주소	_____	
	⑥ 시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l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열린 치매예방 세미나에서 한미가정상담소 지니 최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말씀생활 충실·손발운동으로 예방 선한목자장로교회 치매예방세미나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치매예방세미나를 23일 저녁 7시30분 한미가정상담소(소장 유동숙)의 원목이자 프로그램 디렉터인 지니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지니최 목사는 "치매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그리고 기타 8가지 치매로 나누어지는데 알츠하이머가 70%, 혈관성 치매가 20%, 그리고 기타가 10%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치매는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게 되는 병이다. 치매발견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통 1년에서 10년까지 걸리게 되며 최대 20년까지 진행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 학습과 기억 그리고 계획세우는 것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중증치매환자는 말하기, 이해하기, 주위 사물과 거리측정 감각 둔화현상을 겪게 되



국제개혁대학교 2011가을학기 개강영성수련회에서 손일구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국제개혁대 2011가을학기 영성수련회 '사명, 그 놀라운 은혜!'...강사 손일구 목사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황은영 목사)은 2011 가을학기 영성수련회를 '사명, 그 놀라운 은혜!'라는 주제로 22일과 23일 양일간 선교학박사 손일구 목사(일본 오사카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황은영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집회에서 손일구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손 목사는 "예수그리스도는 완성된 구원자이며 그 구원의 복을

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 사도바울이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늘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이근수 대학원학생회회장이 기도, 윤은영 대학원학생회부회장이 성경봉독을, 그리고 김미선 교수가 특송을 했으며 본교 이사 이운영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둘째 날 저녁집회는 손일구 목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눅 5:4-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인도했으며 23일 오전에는 김시남 박사(총신대학교신대원, UCLA구약학박사, 전 ITS교수 및 총장)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선지자적 목회'라는 주제로 개강특강을 했다.

동 대학교의 올 가을 신입생은 M.Div 13명, BA 8명 등 총 21명이 입학했다. (박준호 기자)



라파선교회에서 열린 선교은행침 침술강의에서 한 참가자가 침술 실습을 하고 있다

라파선교회 제18기 선교은행침 침술강의

라파선교회(회장 오덕상 장로)는 제 18기 선교은행침 침술강의를 25일 저녁 7시 생수의강교회(담임 강신욱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덕상 장로는 "한의학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의학이며 통계로 내려온 것이 침, 뜸, 약 등이 대표적"이라 말하며 오행 침과 기와 혈, 경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 장로는 "인간의 장기는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에는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양에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등으로 나눈다"고 말했다.

강의 후 이 선교회 스텝인 원장식 집사의 침술 실습시간 등이 이어졌다. 이번 침술강의는 전도와 선교 목적으로 개최됐는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계속해서 열린다. (박준호 기자)

LA사람사는세상, 고 장준하선생 추모식

'우리는 왜 그를 기억하는가?'

LA사람사는세상 고 장준하 선생 추모식을 '장준하 우리는 왜 그를 기억하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오후 6시 평화의교회(담임 김기대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장준하 선생, 그의 아들이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호준 목사(커네티컷한인교회 담임)의 강연회에서 장 목사는 "아버지인 고 장준하 선생은 삶을 통해 민족과 통일의 참뜻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은 크게 세



고 장준하 선생 추모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번의 100미터 달리기를 하신 분이 다. 첫째 100미터는 해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셨으며 두 번째 100미터는 해방 후 분단된 이 땅에 폐허가 된 민족정신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4.19혁명으로 민주화를 맞이하는 듯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칼빈성서신학대학(원) 2011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칼빈성서신학대학원(학장 김진수 목사)은 2011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한다. 모집분야는 박사(D.D, D.Min, D.Ed, D.Miss, Th.D, Ph.D), 석사(M.Div, M.Ed, M.CM, Th.M, M.Miss), 학사(Th.B, B.C.M, B.Ed) 등이다. 개강일은 9월 12일 오후 6시.
▲문의: (213)389-8987

꿈나무한국학교 학생모집
남가주든든교회 부설 꿈나무한국학교(교장 김현인 목사)가 2011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본교를 통해 한글과 전통문화를 익히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흥미롭고 창의적인 수업이 진행된다. 개학일은 9월 10일 오전 9시.
▲문의: (213)481-2779

제10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준원 목사)는 제10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모집을 한다. 응모 자격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학생,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 대학(원) 재학생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 GPA가 B+이상이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12명이며 각 1,000달러씩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신앙간증문 및 비전서(2장 이하), 담임 목사, 지도 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성적증명서이며 10월 21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847)359-5200

(9면에서 계속)
또 브라질인, 중국인 등도 준비팀에 합류해 영화제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제는 영화 상영, 전시 및 음악 공연, 시상식, 애프터 파티 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계속되며 입장작에는 △대상 5천 달러 △최우수 단편 3천 달러 △최우수 다큐 3천 달러 △최우수 선교미디어 2천 달러 △최우수 필름 1천 달러 △최우수 사운드트랙 1천 달러 △최우수 뮤직비디오 1천 달러 △최우수 교회미디어 1천 달러 △남우주연상 5백 달러 △여우주연상 5백 달러 등의 상금이 수여된다.

GMT는 5만 달러의 예산이 드는 PFFF를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인 수퍼 콘서트를 오는 9월 10일(토)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에서 개최한다.
▲문의:(213)500-8422, (714)956-7233 (박준호 기자)

했으나 5.16으로 인해 들었던 군사정권에 맞서는 세 번째 100미터 경주를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장준하 선생은 유신정권에 맞선 네 번째 100미터 달리기 시작했지만 유신의 마지막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생을 마감하시게 됐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100미터 경주는 혼자만의 경주가 아닌 모두가 함께 뛰었던 릴레이경주였다"고 밝혔다. 그는 "찢어진 민족의 갈라진 삶이 하나가 되어 서로 열썬아 진정한 해방이 되어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고 말하며 "어젠가 막이 내려질 100미터의 결승점에서 빙긋 웃으며 바라보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

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은 평화의교회 김성회 형제의 사회로 시작, 묵념, 김기대 목사의 인사말, 문병란 시인의 추도사, 고 장준하 선생의 다큐멘터리 영상 소개, 문제철 시인의 시낭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지난 12일 은호기 용이 강사로 나서 제1강 장준하 선생이 부딪친 사회를, 19일 이병도 상임회장(총원포럼)이 강사로 나서 제2강 민족지도자 장준하 선생이 말하는 리더십은? 제3강 왜 아직도 우리는 장준하를 기억하는가?를 26일 김기대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강연을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본사 방문

"목사 신분증 발급 및 설교집 발간 준비중"

남가주 목사회 박효우 회장 정요한 총무



행사준비를 설명하고 있는 박효우목사(좌) 정요한 목사(우)

남가주 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와 총무 정요한 목사가 지난 25일 본사를 방문, 목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목사 신분증 발급과 설교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며 협력을 당부했다.

남가주목사회는 목사회 신분증 발급을 재개한다. 기한은 9월 말까지로 교단추천서와 목사회 임원추천서, 사진 2매와 신청비 20불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설교집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1998년 남가주목사회에서 설교집을 발행한 후 지금까지 중단돼왔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 11월 발간을 목표로 원고를

모집 중에 있다.

금번에 발행될 설교집에는 남가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의 원고 게재가 가능하다. 원고 분량은 레터용지 5매정도 분량이면 되고 원고마감은 9월 15일이다. 뿐만 아니라 9월 중에는 피종진 목사를 초빙, 집회로 개최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자세한 것은 (213)422-919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활기칩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향안 목사)는 총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흥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영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찬회의 초대, 참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 예배(영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애, 본문, 주석, 찬양, 기타)
- 주일 낮 대 예배 설교를 위한 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 예배(주 안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근교 예배(근교목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다독이포인트 중점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흥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8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용을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세계선교대회’ ... 새전도 사역의 길 열자

예장합동, 100개국 2133 선교사 파송

100개국에 2133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대회(GMS·이사장 하귀호 목사)가 주최한 ‘2011 세계선교대회’가 29일 경기도 안산동산교회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교단 설립 100주년인 2012년을 앞두고 그간의 선교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선교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회 첫날 3000여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및 교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도 바울의 후예가 될 것을 다짐했다. 대회는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새에덴오케스트라의 축하연주

로 시작했다. 이어 소강석 목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때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확장해 나가신다”면서 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을 환영했다.

김삼봉 합동 총회장은 개회예배에서 ‘선교의 비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김 총회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세계선교대회를 갖는 이유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에 따라 선교해야 한다”면서 “100개국 2133명의 선교사로 만족하지 말고 온 세계 열방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단이 돼 선교한국을 이루자”고 세계 선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회는 GMS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김형영 선교사는 “지금 산동(山東) 선교사 파송 이후 100여년의 선교의 발자취를 살피는 한편 내일을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디아스포라 선교나 비즈니스 선교, 비거주 선교 등 평신도 선교를 새 선교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선교의 밤’ 예배에서는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선교’(성경 전문 39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이제 21세기 교회는 1세기 초대교회의 거룩한 야성과 전투적 영성을 회복해 세상을 향해 ‘보냄 받은 사명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고 복음의 지평을 무한히 넓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는 다음 달 2일까지 4박5일간 지속된다. 매일 저녁 집회인 선교의 밤에서는 김인중(안산동산교회) 정필도(수영로교회) 길자연(왕성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또 분야별 선택특강 및 국가지역별 전략특강, 국제CCC 스티브 더글러스 총재의 초청강연이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기하성도 여성 목사 등용문 넓힌다

목사 안수 자격요건 개선키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여성 전도사도 목사가 되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16일 교역자 기도회에서 “우리 교회도 여성 부교역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은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격 요건에서 남성의 경우 전도사 3년, 여성은 10년의 경력을 쌓아야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해 단독 목회를 할 경우 2년의 전도사 과정만 거치면 목사 안수를 주고 있다.

그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내부

적으로 10년이 넘는 여 전도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거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회 내 여 전도사는 140명으로 90명이 교구에서 성도 심방을, 50명은 교회기관에서 연구와 교육 사역을 맡고 있다. 이 목사는 또 여 전도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역 활성화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유능한 여 전도사들을 교회에서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최근 기하성(백성배 목사)과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여성 목사 안수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 교단이 통합될 경우 여성 목사 안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길자연 목사 한기총대표회장직 5개월 만에 완전 회복

길자연(서울 왕성교회)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완전히 회복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7월 7일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결정된 길목사의 대표회장 인준과 길 목사가 지난달 12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취소’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길 목사는 지난

3월 28일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후 5개월 만에 복귀하게 됐다.

길 목사는 특별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인준됐지만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던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식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됐다.

길 목사는 28일 “지난 7-8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린다”면서 “납은 임기 동안 한기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회원 교단과 단체 그리고 총회대인원, 실행위원들과 일심동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 목사는 오는 31일 소목도를 방문, 주민 위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대표회장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때 이광선 전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기총 관계자 40여명도 참석해 위로와 배려와 문화행사,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기총은 길 대표회장의 복귀에 따라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인준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소집 공고 후 20일 이후 실시된다. 따라서 29일 소집공고를 내더라도 다음달 18일 이후에 임시총회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음 달 중순에 주요 장로교단의 총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임시총회는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길 목사는 지난해 12월 21일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됐지만 올 1월 20일 정기총회 회의 절차상 문제로 법적 소송 및 금권선거 논란 등에 휩싸이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한기총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총회결의 무효 확인 분안소송(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1호)만 남아 있다. 원고 측 일부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교계, 여성 목사안수 확산 속 대세로

[미션리포트] 국내 다수의 교단은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국내 교단 중 처음으로 여성안수를 도입했다. 1931년 한국에서 사역하던 여성선교사들에게 안수를 줬고, 이후 55년 전밀라·명화용 목사가 국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안수를 받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장)는 55년 ‘여자 장로’ 제도를 채택한 데 이어 74년엔 ‘여자 목사’ 제도를 받아들였다.

2년 전엔 예장 백석이 총회에서 여성안수를 전격 결의했다. 하지만 일부 노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시행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2004년부

터 매년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마다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고 있지만 안전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성안수를 찬성하는 측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교회도 그 추세를 비추지 않을 수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신분차별이 다 철폐될 만큼 여성안수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예장 합동, 예장 고신 등은 여전히 ‘여성안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한국성경신학회 논문발표회에서도 이들 교단의 입장은 확고했다.

예장백석도 ‘여성 목사안수’ 확정

‘시행방법 3개항’ 과반수 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노문길 목사)가 여성 목사안수 시행방법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르면 10월 정기노회 이후 여성 목사안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석총회는 30일 서울 배재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노회 수의 결과 여성 목사안수 시행방법 3개항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여성 목사안수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13일 현재 백석총회 소속 여성강도사 또는 2010년 9월 13일 이후 목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강도사는 백석총회에서 목사안

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경우 백석교단의 여성목사가 될 수 없다. 3개항목에 대한 유효 투표수는 5280표이고 그 가운데 찬성은 3031표로 집계됐다. 반대 2249표, 무효 756표로 총 투표수는 6036표였다. 향후 총회 헌법위원회 등이 여성 목사안수 시행세칙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회 수의 개표 결과에 대한 일부 노회의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의사를 밝힌 한 실행위원은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헌법사항으로 다뤄 유효투표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것”이라며 “이번 투표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여성 목사안수는 2009년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노회 수의 결과도 합법적”이라며 “여성 목사안수가 시행되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정·부총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4명은 모두 여성 목사안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009년 9월 총회 당시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후보자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에 대해선 모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백석 총회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배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직장인은 조직 내 대인관계와 업무 관련 비리, 부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생활 중 생기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주로 예배나 기도 등 신앙생활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성(대림동 총신교회) 목사가 최근 안양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직장생활 중 겪는 고민이나 갈등’을 묻는 질문에

양양심상 가장 힘들었던 것’을 묻는 질문에 비리, 부정 등 부정직(20.0%), 절대문화(18.3%), 뇌물(7.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별다른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42.3%를 차지했다.

고민 해결 방법은 주로 설교와 기도 등 신앙활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직장 내 고민과 갈등 해소 방법’을 묻는 질문에 ‘예배를 통해서’와 ‘기도를

신우회 참석자의 활동 이유는 ‘기독교 신앙인들의 연합’(40.7%)이 가장 많았다.

직장에서의 전도 경험에 대해서는 69.0%가 “있다”고 답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28.8%),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19.6%), ‘전도 방법을 몰라서’(17.3%),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워서’(11.8%)

이형규 장로 대한출판문화협 부회장 선출

쿰란출판사 대표

쿰란출판사 이형규 대표(효성교회 장로)가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제47대 부회장으로 단독 선출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의 자유를 확보하고 출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출판문화의 사명을 달성하여 문화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된 일반 단행본을 물론 학술도서, 교과서, 전집 등을 발행하는 모든 분야의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출판계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

본 협회에서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자료 납본을 대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각종 자료를 집계, 분석해 출판 통계를 산출해내고 있으며, 월간 ‘출판문화’와 연간 ‘한국출판연감’을 발행함으로써 출판 기획과 출판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출협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현재는 1인), 상무이사 9인 이내(현재는 5인)로 구성돼 있으며 부회장은 정관에 따라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

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회장을 대신해 각종 출판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낭독하는 일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형규 장로는 1987년에 쿰란출판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32년째 출판사 역에 헌신하며 전 세계 독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약 3,000여종의 기독교 관련 단행본을 발행했다. 또한 2004년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2008년엔 출판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45회기 상무이사로 3년간 역임했다.

크리스천 직장인 스트레스, 대인관계 20%

“갈등·고민은 예배와 기도로 해결” 63%

‘대인관계’라는 응답이 20.1%로 가장 많았다. 업무 스트레스 혹은 절대문화(17.5%), 건강(16.2%), 고용 등 직장 불안정(14.7%)이 뒤를 이었다. 주일성수, 윤리적인 문제를 인한 고민이나 갈등은 각각 9.2%와 8.4%였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 크리스천 직장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직장생활에서 받은 유혹 중 신

통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1.6%와 31.4%를 차지했다.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도 7.1%나 됐다.

직장신우회 참석 여부와 관련, 절대 다수인 80.2%가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신우회가 결성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66.2%로 가장 많았다. ‘시간이 없어서’, ‘믿는 직장동료가 없어서’가 각각 14.7%와 7.6%였다.

순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목회자의 인식 전환과 다양한 목회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교회 내 또는 교회 간 동종 직종의 교인들의 네트워크, 직장사역 단체들과의 연계 등을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뉴욕코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9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저수 Towel
앞면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패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저수 Towel
배너도, 견본 및 각종 무늬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towel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28-85 Bousque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아프는 삶에는 안행·부·
SBMI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I는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원 From Believers to Faith
2. 신앙의 생명원 From Faith to Immortal Life
3. 생명의 후원원 From Immortal Life to Eternal Impact

시애틀: 206-461-0191, Fax: 1026-04-8833
E-mail: sbmi1@comcast.net

《물론》 미주크리스천 다우저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136-20 36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멕시코 시·링·산·교·회 선교동행기 (하)

“ ‘서 선교사 멕시코에서 13년 선교사역하다 암으로 사망?’

하나님! 이런 인생 시나리오는 재미없잖아요? 멋진 반전 주세요!”

멕시코 Maneadero에 소재한 사랑선교회(Amor Mission International 서진원 선교사) 사역현장에 본지 이성자 기자가 다녀왔다. 남가주드든교회 단기선교 팀과 동행한 것. 이기자의 선교동행기를 1,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인터뷰

“지난해 11월 목이 쉬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멕시코교회 예배가 축제거든요. 찬양을 2시간 할 때도 있고. 그러다보니 너무 목소리를 많이 써서 그러려니 했죠. 레몬에 꿀을 타서 마셔보기도 했지만 4주가 지나도 낫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12월에 모친의 소천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갔죠. 공항에 마중 나온 동서가 잘 보더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병원검사 결과가 뜻밖에 갑상선암 4기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의사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특진으로 수술 날짜를 1월 19일로 잡았는데 선교지의 모습, 혼자 남은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려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원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떼를 썼죠. 이런 내 인생 시나리오 너무 재미없다고 반전의 하나님에게 반전의 기회를 달라고, 멋지게 인생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118: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다'였죠. 이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멕시코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식단부터 바꾸었어요. 선교센터 앞뜰에 야채를 심었지요. 오이, 깻잎, 배추, 파 등 온갖 채소는 다 심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기농 채소를 먹고 과일과 현미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먹는 것(창1:29, 30 채소, 씨앗, 과일, 나무)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식생활을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입맛대로 먹는 것도 죄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이, 재미있게 제스처까지 아끼지 않으며 말을 이어가는 서 선교사의 모습은 암환자 그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암 선고를 받은 서선교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회고한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왜 이리 되어야만 했는지 묻고 하나하나 지나온 시절들을 돌아보며 통회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무지 자신이 암환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마라톤 대회에 나가 두 차례나 완주하여 메달을 얻었고 주위 선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 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건강 체조를 강요했다. 어디 그뿐인가 엔도르핀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웃음보따리를 선사하기도 했던 그가 암4기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이 건강에 자만했음을 알게 됐다. 선교사로 23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는 몸이 아팠다는 기억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문턱에 가본 일도 없었다. 정기 점검을 두어 번 받은 일이 있지만 건강점검의 관결이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날 수 있는 높이뛰기 선수인양 몸을 혹사시켰고 간혹 힘들면 하루 이틀 정도 쉬면 나아졌다. 그러기에 서 선교사의 사역은 신바람 나고 즐겁기만 했다.

○...서 선교사의 사역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잘 나가던 기업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다. 나를

기만 했다. 바닥이 없는 흙더미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도인들. 라면박스 몇 개를 바닥에 깔고 살아가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이미 박스들은 젖어 있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들이 눈에 밟혀 한번, 한번, 일곱 번의 단기선교를 거듭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면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떠올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떠밀림(?)에 못 이겨 아무 대책도 없이 멕시코로 향했다. 당시엔 파송교단도, 교회도 없었다. 선교비도 없었다.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행히 인도인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 미국 선교사가 이끌어오던 교회 건물이 있었다. 서 선교사는 그 교회에 청빙(?)

회를 옮겨야할 장소가 필요했다. 이 소식을 들은 캘리포니아 모 교회 미국 선교팀에게 ‘장소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주겠노라’는 약속을 받았다. 재료도 가져온다고 하고 노동력도 있는데 땅이 없었다.

어찌해야할까? 막막한 심정으로 서 선교사는 북가주 쪽 어느 금식기도원을 찾았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활동적이며 절망을 모르는 서 선교사일지라도 속수무책이었다. 주님!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며 애 통하며 부르짖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다. 누구와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어디 틀어박혀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서 선교사를 위해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마침 그 기도원에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목회자도 성도도 함께 있었는데 그

전폭적인 주님 역사 믿으며 간절한 통곡의 기도·자연식 식단교체 생명주시는 날까지 사역하며 생활의학 건강세미나 홍보대사 활동에서



서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의료선교를 담당한 남가주드든교회 의료선교팀. 좌로부터 김옥란사모, 홍문천, 이동훈집사 강준석 장로



혼신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서진원선교사

위해 죽은 주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사무쳤다. 이대로의 단일한 삶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 두둑한 통장을 들고 영국으로 선교사로 날아갔다.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 그곳 영혼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기뻐다. 행복했다. 그렇게 10여년이 지나자 통장이 바닥나게 되었고 그때 그는 새로운 사역을 꿈꾸게 되었다. 목회! 목회를 해보고 싶었다. 그는 목회자로서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들어왔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 4개월쯤 지났을까? 우연한 기회에 친구목사가 하고 있는 멕시코 단기선교에 조인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곳이니가 별 부담 없이 함께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마네아데로였다. 13여 년 전이기에 지금의 마네아데로보다 훨씬 더 열악하

게 받게 되자 부러울 게 없었다. 교인이 있고 교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서 선교사의 전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우선 마을 사람들의 삶도 돌보아야 했다. 그들에게 평상을 짜서 집안에 들여 놓아 주자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을 수 있었다. 겨울철이 되면 추위에 못 이겨 아이들이 사망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며 감기약을 청했다. LA에서 공수되는 감기약을 가을철로 접어들면 아이가 있는 집에 미리 미리 전달했다. 감기가 걸려도 약이 없어 자칫 시기를 놓쳐 죽음으로 이르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다. 인도인들은 서 선교사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서 선교사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있었다.

○...사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즈음 교회가 철거되는 위기가 닥치게 됐다. 교

회도원 원장이 설교를 청하는 것이 아닌가? 설교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 사양했지만 강권적으로 설교를 부탁했다. 저녁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도, 저녁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설교를 이어가며 금요일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다 보니 떠나야 할 날이 됐고 아무 결심은 없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막막함으로 아침을 맞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설교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선교에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과 함께... 할렐루야!

○...그 성도가 내민 선교헌금으로 현재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했다. 인도인마을에 있던 교회 건물은 8등분으로 쪼개 현재 장소로 옮겨 놓았고 예정대로 선교 팀들이 와서 건축도 도와주었다. 그리고 지

금까지 선교 팀들의 건축선교는 이어지고 있다.

이곳으로 옮겨와 수년이 지나자 이제 어엿한 선교센터로 모습을 드러나게 됐다. 분당과, 식당, 컴퓨터 학교건물은 물론, 지난해엔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바꿨다. 화장실을 바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선교를 온 어느 여학생이 며칠이 지나자 배가 아프다고 했다. 소화제도 먹어보았지만 여전했다. 후에 알고 보니 화장실을 안 가려고 먹지 않아 생긴 병이었다. 재래식 화장실에 가야 다니는 벌레들을 보고 도저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그 후 서 선교사는 화장실을 개조했다. 언젠가 물이 풍족해지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워기도 달았다.

이처럼 이곳저곳 서 선교사의 손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속수 무책이던 재향센터에서는 지금도 15명의 마약중독자들의 재활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가 꿈꾸는 것은 3년제 유치원, 유치원교실 3개가 완공되면 유치원생들을 영입하게 된다. 물론 선교센터 주위에 있는 인도인 후손들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올핸 다른 해보다 선교팀의 발길이 드문 관계로 유치원 완공의 꿈이 연기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지만 서 선교사에게는 어제보다 더 귀한 오늘이기에 씬 씬 울기 울지 않으며 건국을 이루어가고 있다. 선교센터 뿐만 아니라 캄뵈 두 곳에 지교회도 세웠고 사랑선교회에서 훈련된 목회자에게 사역을 맡겼지만 그 지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것도 서 선교사의 몫이다.

○...이처럼 이어지는 사역들을 생각할 때 서 선교사는 아픔을 호소하며 누울 수 없었던 게다. 그 열정을 하나님은 보시고 어찌해 여기셨고 그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계신다.

짧은 시간 기자에게 지나온 삶을 들려주며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식단이다. 그는 머지않아 생활의학 건강세미나 강사가 되어 될 지도 모른다. 암투병을 하면서 몸으로 경험하고 느낀바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간식은 죄입니다. 하루 3기 정확하게 먹고 그 외에 가능한 간식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채소는 유기농으로 먹어야 해요. 머지않아 각 가정에 작은 텃밭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사법을 따르면 음식으로 만으로도 건강을 찾을 수 있지요” 이것이 서 선교사의 식단 지론이다.

아직 서 선교사의 세포 속에 암세포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여전히 행복하고 기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해 지체할 여유가 없기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생명이 있는 날까지 강단에서, 선교현장에서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험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서진원 선교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파송선교사로 영국과 멕시코에서 23년째 사역하고 있다.

amomission@hotmail.com (이성자 기자)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lm Wray
 눈, 보, 귀, 입에서 일어나는 감각장애 손에는 전동기기가 있으면 편하게!
 임대료 \$3.00 a day \$21.9/week
 39¢ 공짜!
 ■ 가격은 연령에 따라 50% 수준
 ■ 고급 핸드폰 제공
 ■ 영리 - 스페셜 할인
 ■ 미국 어디서든 무료 배달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
 2767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382.4636 Fax: (213) 382-1184
 로스앤젤레스 지사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탁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 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명: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96-4400 (Fax)718-896-0074 / E-mail: NY@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회명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5)



연실적인 이슈 /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15세 친구들이 이사회에서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일으키고 싶으신 분이시며 이 시대와 세대를 함께 하고 치유하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어서 모순되고 절망적인 미국과 더 나아가 한국과 세계와 온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많은 이들이, 그리고 그 리더가 할 소명이 가장 큰 이들이 바로 우리 15세 친구들이며, 따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교육하는 일은 참으로 절박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 오늘을 그렇다면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리더십을 고취시키고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교육해야 할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이분법적인 분류를 하려는 의도도 없고 실상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하거나 또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많이 그 조직적 가치와 사회적 순기능이 있음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분명히 것은 크리스천 리더십과 세상적인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고 동기과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리더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악하고 유약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압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닌 설득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참된 리더의 모습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늘 사랑으로 돌보며 이해와 배려로 이끌고 부드럽고 온화하여 더 큰 힘이 있는 그러면서도 불의에 대해 단호하고 정의에 대해 열정적인 리더의 모습 말입니다. 이 모두를 통해 모든 이들과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영감과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참된 의를 실현시키시는 그런 리더의 모습 말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을 우리 친구들에게 고취시키고 개발시키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일그리고 상처 난 이 시대와 세대를 함께 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고, 모순되고 절망적인 미국과 더 나아가 한국과 세계와 온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진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사람

자신을 위한 세상 리더십과 달리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것 자신을 내어주어 타인을 섬기는 겸손한 예수그리스도 모습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리더십의 동기과 목적이 전자는 하나님과 타인들을 향해 있는 반면 후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형태와 분야는 다양하지만 인간들에게 허락된 리더십이라는 탭렛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섬기기 위해 개발하고 훈련하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개발하고 훈련하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며 자신들 스스로의 능력인 양, 자신들이 잘라서 그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발휘함으로써 세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은 그 리더십의 형태만 있을 뿐 아무 통찰도 아무 영향력도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자칭 리더들을 경험하면서도 영향력 있게 우리의 왜곡된 사회를 함께 할 참된 리더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들이 되어야 함을 우선 전제로 하고—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리더십을 은혜로 선물로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예를 들어 사역, 행정, 지식, 권면, 가르침, 돌봄, 봉사 등등—주어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잠재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 후에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역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은 이치러 다양한 잠재된 리더십을 알아봐주고 발굴해주고 격려하며 개발시키는 일입니다(이것은 우리가 흔히 리더십교육의 첫 단계라고 알고 행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만 계속 말씀 드리는 바 먼저 크리스천 리더십의 선대한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자각 및 공감의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의 탭렛을 각각에 맞게 잘 개발시켜서 실질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잠재력은 훈련을 통해 형태를 갖추고 실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의 형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메시아 왕권 (왕하9:1-13) 찬102장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백성 곧 언약백성으로 신약교회와 공동기업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나라의 모형입니다. 본문 왕권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배움인가? 첫째, 하나님은 친히 권위를 세우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6).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서 지체가 신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 둘째, 그리스도의 나라를 중심하여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합의 타락한 왕권을 폐하시고 예후의 왕조가 들어서게 함으로 하나님나라의 의를 나타내심은 일시적이었지만 신약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힘쓰심으로 생령 안에서 왕 노릇해야 합니다.

화 아합의 죄 (왕하10:1-17) 찬337장

본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죄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땠는가? 첫째, 아합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배은망덕이었습니다(2). 모든 외교에 능했지만 왕의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로 걸었을 때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고 나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의 치료는 반드시 따릅니다(요

일1:7-9). 둘째,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습니다. 아합과 사돈 아히사야, 형제들의 죽음(10)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근거해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수 오시야의 실책 (왕하14:17-25) 찬456장

아사라는 52년간 유다왕국을 다스렸으나(21) 그의 통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가르침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척관계인 아사야 같은 위대한 종을 알면서도 말씀 생활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돌팔배 떨어진 씨앗같은 태도는 버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옥도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일시적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순간적 교만한 행동 때문에 화를 내며

분향하다 문둥이가 됐습니다. 그의 교만한 행동이 온 백성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농경정책에 성공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신무기까지 개발해 국력을 든든히 했으나 자신의 번성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빈궁할 때나 번성할 때 잘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로 사는 지혜는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만 가능합니다(빌4:13).

목 구약의 선교 (왕하14:23-29) 찬268장

본문은 선교에 관심을 쏟고 실행하는 현대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니느웨 성의 대부흥을 일으킨 요나의 해외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예로보암에게는 경제적 부요했으나 생명의 주를 떠났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 주도할 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주십니다. 요나에게 유대주의가 패배한 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불성실한 시대의 증거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니느웨의 부흥을 남기셨습니다. 둘째, 성령의 선교를 보여줍니다. 요나의 단 한번의 전파로 온 성이 송두리째 구원받은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 불가합니다. 요나서 외에도 더 많은 계시를 보으신 까닭은(25) 구원계시는 전 인류와 만물의 영원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안전권이 들어갑니다.

금 예로보암의 죄 (왕하15:1-18) 찬404장

15절 말씀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모든 악의 평가기준이 됐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경의 신앙이 분이었다면 북쪽은 예로보암의 죄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의 죄는 단과 벨엘에 순종하지 우상을 세움으로 바알, 아세라, 몰록, 이방의 신들을 경배하는 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둘째, 죄의 전염성은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자기는 물론 나라 전체 심지어 남북

유대에도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그 영향은 신약의 신자의 삶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만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동성연애의 죄도 근심하는 우리 시대도 이 잘못도 자기의 죄를 살펴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토 불순종 (왕하18:1-16) 찬429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멸망원인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언약과기가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남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절대기준을 다른 곳에 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목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불순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생명이요 구원이

고 복입니다. 불신앙으로 치우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대응물인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귀한 순종을 배울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는 교제를 실제로 누립니다. 세원악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도와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야 합니다.

개신교학교는 신앙을, 가톨릭학교는 학업 더 강조

K-12(킨더가든-12학년 : 유치원에 이르는 미국의 정규 교육)을 대상으로 한 새 연구 조사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계열 학교들은 각각 학생들의 영적·지적 발전에서 일반 학교들보다 더 나은 성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싱크탱크 카투스(Cardus)가 미국 내 기독교 학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조사한 결과다.

가톨릭 학교 학생들은 더 나은 학업 성취 결과를 보였으며, 일부 대학 진학 고급 학위 획득 및 높은 수준의 소득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가톨릭 학교의 목표와 일치한다. 가톨릭 학교의 행정관은 학업적 성취를 중요

하게 여기며, 개신교 학교에 비해 학습 과정에 대한 더 엄격하게 지도한다.

그러나 가톨릭 학교 졸업생들은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공립학교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이혼하고, 가톨릭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보다 더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며, 교회 내에서 리더가 되지도 않는다.

반면 개신교 학교의 졸업생들은 가톨릭 학교의 졸업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 성취도는 낮지만 학교에서 배운 사회적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가톨릭 학교, 비종교적

사립학교, 공립학교 졸업생들보다 그들의 가정, 교회와 공동체에 더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스 조사는 "개신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헌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학업 발달의 측면에서는 공립학교보다 조금 더 앞서지는 않는다. 반면 가톨릭 학교는 신앙과 종교적 실천에 대한 헌신을 희생하는 대신 높은 질의 지적 발달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이번 조사는 노르트담 대학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의 기독교 학교 졸업생 1000명과 비기독교 학교 졸업생 500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개별 질적 연구는 인터뷰와 표적 집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대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금관교회 담임목사: 정정범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오예배: 오후 7:30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돈돈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30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후 6:00-7:00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후 1:20 (1부만)	맨큐버러빌리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오예배: 오후 7:00 (영양과 함께) 새벽기도회: 오전 11:00-12:0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후 5:00 (영양과 함께)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경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영양과 함께)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11:00-12:0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병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오예배: 오후 7:3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오예배: 오후 7:30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영양과 함께)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희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1:30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오예배: 오후 10:30-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영양과 함께)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지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승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청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새벽 7:30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